

문화특종



부안대서마을, 농업특성화사업 선정으로 8억 2000만원 확보

부안군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품질이 우수한 대서마을이 농촌진흥청 지역농업특성화사업에 선정됐다.

부안군 농업기술센터는 부안 대서마을이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지역농업특성화사업에 선정돼 오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명품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부안 대서마을은 서해안 해풍을 맞고 자라 다른 시군에서 생산된 마늘에 비해 마늘조각이 치밀하고 저장성이 높아 시장에서 선호하지만 처리시설 등이 미흡하고 부안 산 마늘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가격 교섭력이 매우 취약했다.

이에 따라 부안군 농업기술센터는 부안 대서마을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사업 계획서를 수립해 이번 공모에 나섰으며 원예분야에서 유일하게 스페셜 등급을 받아 8억 2000만 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농업기술센터 강성진 친환경기술과장은 "확보한 예산을 가공제품 개발과 홍보 마케팅 등에 집중 투자해 부안 대서마을 브랜드를 육성하고 명품다지를 조성해 전국 최고의 마늘 브랜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안=이옥수 기자

평생학습박람회서 김제시 인기

전국의 평생학습이 한 곳에 모여 열리는 제5회 대한민국평생학습 박람회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경남 거창군에서 열려 대한민국의 평생학습기관, 단체, 평생학습도시가 모여 학습성과를 나누고 공유하는 장으로 펼쳐졌으며 전북권 8개도시가 함께한 전라북도 통합관이 큰 인기를 얻은 가운데 성황리 종료되었다.

교육부 거창군 경남 도?도교육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최 주관으로 열린 이번 박람회에서는 배움으로 즐기는 100세 시대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전국의 138개 평생학습도시를 비롯한 230여 평생교육기관·단체가 함께하여 다채로운 학습프로그램과 전시, 컨퍼런스 행사 등이 개최되었다. 김제시를 비롯한 전북권 8개 평생학습도시(진안, 진주, 익산, 김제, 남원, 정읍, 완주, 군산)는 전북으로 떠나는 학습여행이라는 주제로 공동으로 참여하여 "여행"을 테마로 한 참가도시별 전통 문화, 역사 등 학습명소를 소개하는 홍보관과 8가지 독특한 이색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체험존으로 구성되어 연합홍보관을 운영하였으며 주제와 연계하여 독특하게 제작된 퍼즐형 홍보책자도 큰 인기를 끌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전북청 베스트팀 선정 영예

김제경찰서(서장 황대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이 전북지방경찰청 수사업무평가에서 2016년도 8월중 전북청 베스트 '지능범죄수사팀'으로 선정되어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김제경찰서 지능팀은 소순관팀장을 중심으로 지난해 사이버범죄 277건을 접수처리 입건 하는 등 고소·고발·진정 등 200여건의 수사원활을 처리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특히 고질적인 사회 부조리 보혐사기,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포도밭 현대화사업 보조금 3천여만원을 편취한 2명을 검거 하는 등 대포차 유통 2건, 대포통장 양도 5건, 부정·불량식품사범 6건, 사기 등 17건에 20여명을 검거하여 입건했다.

이러한 결과 이번 전북 도내 15개 경찰청서를 대상으로한 베스트팀에 선정된 쾌거를 이루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오늘 지평선축제 팡파르

내달 3일까지... 6개 분야 60개 프로그램으로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한민국 최초 4년 연속 대표축제인 제18회 김제지평선축제가 29일부터 오는 10월 3일까지 5일간 농경문화의 산실인 김제 벼골제에서 성대하게 열린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하는 김제지평선축제는 전통농경문화의 정체성을 계승하고 지역문화유산을 현세대의 감각에 맞게 구성한 축제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황금물결의 비경 지평선(horizon)이라는 무형의 아이덴티티를 통해 현재까지도 변함없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축제이기도 하다.

특히 올해는 '세계 속의 지평선! 세계로 향하는 지평선!'이라는 슬로건으로 축제를 찾는 관광객에게 새로운 즐거움과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6개 분야 60개 프로그램으로 새단장하여 진행된다.

올해는 축제의 상징과도 같은 벼골제 쌍룡을 배경으로 차별화된 콘텐츠 중심형 개막식과 대동성을 강화한 화합형 폐막식을 연출할 예정이다.

우선 오늘 열리는 개막행사에서는 식전행사로 우석대학교 태권도 시범공연과 자매결연도시인 동해시의 색소폰 5중주 공연에 이어 김제시 합창단의 축하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며, 공식행사에서는 정회운 제전위원장의 개막선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축제의 시작을 알리고, 개막회공연으로 '세계 속의 도약, 새

지평을 열다!'라는 주제로 개막회공연이 연출된다. 이어 벼골제 건너편의 국립김제청 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에서는 국내의 초청인사를 대상으로 전통음식인 설렁탕을 메뉴로 한 리셉션이 1시간 동안 간소하게 치러질 예정이다.

2년 연속 벼골제 쌍룡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개·폐막행사를 통해 벼골제 쌍룡이 지평선의 고장 김제와 지평선축제의 진정한 랜드마크로 자리잡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올해에는 최근의 한류 열풍을 반영한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한 백제문화권 축제상품 개발로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백제문화와 전라도의 가을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UN에서 3년 연속 농업 관련 의해 선정에 따라 2014년(세계 가족농업의 해·가족대항 초가집 만들기 프로그램), 2015년(세계 흙의 해·흙 체험부스)에 이어 2016년 '흙의 해'를 맞아 잔디농부 체험관과 두부홍보, 판매관을 운영하여 생명의 근원인 농업의 중요성을 축제장을 찾은 이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김제지평선축제 하면 빠질 수 없는 벼골제 전설 쌍룡놀이와 풍년 기원 입석놀이(다리기)는 김제지역 설화와 지방민속자료를 토대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관광객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대동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길러콘텐트로서 한층 업그레이드되어 진행된다.

또한 향후 김제지평선축제를 이끌어 갈 농경문화 콘텐트로 '농악'과 '농주의 봄 조성을 위해 '한민족의 일! 농악 기화공연(농악야 놀자!)과 대한민국 막걸리 페스티벌'은 축제 속의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성대하게 준비하고 있다.

김제지평선축제는 향후 지속가능한 축제로의 전환을 위해 지역문화,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농촌마을 체험과 숙박이 어우러진 '농촌에서의 하루'와 '지평선팜스테이'를 확대 운영하며, 정신수양을 위해 미려한 '학성강당 예절교육'과 '금산사 템플스테이'가 준비되어 있으며, 다양한 체험 위주의 '징계장이 전시 체험관'과 '생태놀이 체험장이 축제 기간 내내 상시 운영된다.

또한 지평선축제의 주무대인 벼골제가 수리시설임에 착안하여 2014년부터 미려한 수상마당의 프로그램 확대와 주, 야간 상시적 운영을 위한 야간 경관조명이 확대 운영된다.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공간별 주제에 맞는 디스플레이 연출과 야간 체험형 프로그램이 수시 운영된다. 지평선축제의 콘텐트타워 역할을 하는 농경사주제관의 외벽에 농경문화 이미지를 삽입하였으며, 주제와 어울리는 유채벽을 활용한 대자이트를 조성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군 협의회 회원과 부안군 친 환경축신과·변산면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여해 격포항 주변 쓰레기 및 재활용품 약 3.5톤을 수거했다.

격포항서 행복홀씨 선양사업 정화활동

바르게살기운동본부 부안협의회

부안군과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부안군 협의회(회장 박용철)는 지난 27일 격포항 폐비 행장 일원에서 행복홀씨 선양사업 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날 부안군 협의회 회원과 부안군 친 환경축신과·변산면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여해 격포항 주변 쓰레기 및 재활용품 약 3.5톤을 수거했다.

행복홀씨 선양사업은 민들레 홀씨처럼 세상에 행복과 선한 양심이 퍼져 간다는 의미로 추진하는 환경정화활동으로 공원이나 지역명소 등 일정 장소를 지역주민과 민간단체, 기업체가 일약해 자율적인 청소, 꽃 가꾸기 등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부안=이옥수 기자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부안협의회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부안군 협의회는 매월 정례적으로 읍면별 일정 입양구간을 깨끗하고 말끔하게 정화하게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 행복홀씨를 퍼뜨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행복홀씨 선양사업에 참여해준 부안군 협의회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행복홀씨 선양사업에 참여하고 청소용품 지원 등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서남권 추모공원 화장로 2기 증설

10월부터 총 5기 운영

서남권 추모공원(이하 추모공원)이 화장로 2기를 증설하고 10월 1일부터 총 5기를 운영한다.

추모공원은 5기 중 4기는 상시 가동하고, 1기는 예비 화장로 두고 남겨두어 환 갑작스러운 화장수요 발생과 돌발 상황에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추모공원은 "이번 확충으로 1일 가능한 화장 횟수는 시인 11회, 개장유골·사시는 4회"라며 "앞으로 계절별 화장발생 수요 추이를 보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지난해 감곡면 봉석리 일원 4만여㎡ 부지에 건립, 지난해 11월 12일 개원한 추모공원은 공설 화장장과 봉안당, 자연장지(진터장, 수복장), 유

탁동산 등 획기적인 종합장사시설을 갖추고 새로운 장례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당초에는 정읍 고창 부안 3시군이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했으나 4월부터 김제시가 참여, 4시군이 공동운영해오고 있다.

추모공원은 이처럼 김제 참여와 화장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 6월에 화장로 2기 증설에 착공했으며 내달 본격 운영에 앞서 이달까지 시범운영을 마칠 예정이다.

한편 추모공원은 개원 이후 지금까지 총 3천253건으로, 1일 평균 10건이고 봉안당은 516기로, 1일 평균 2기이다. 또 자연장은 344기로, 1일 평균 1건이 안착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이번 협약에 따라 기업은 여성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여성친화 일터 조성에 앞장서고 여성인력을 적극 채용하며 기업의 핵심인재 양성에 나선다.

정읍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

두얼메카트닉스 등 20개 기업과

정읍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는 28일 여성문화관에서 두얼메카트닉스(주) 등 20개 기업 및 기관과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업은 여성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여성친화 일터 조성에 앞장서고 여성인력을 적극 채용하며 기업의 핵심인재 양성에 나선다. 또 새일센터는 여성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여성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앞장서게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새일센터는 특히 직업교육 훈련을 통해 기업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발굴하여 지원하고, 여성인턴제와 여성친화적 기업 환경 개선,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 인식 개선에 필요한 강의 지원 등을 통해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 청하면, 태극기 달기운동

김제시 청하면(면장 김중배)은 연중 국가 경축일 및 기념일이 가장 많은 10월을 맞이하여, 1일(국군의 날), 3일(개천절), 9일(한글날)에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태극기 달기 운동을 집중 추진함으로써 국민 단결을 도모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고자 범시민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했다. 청하면 직원과 주민들은 지방도 711호선 신금마을에서 청하대교까지 가로거리를 설치하고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태극기 달기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선보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고부면 소규모하수처리시설 11월 본격 가동

정읍시가 농촌마을 하수처리사업 일환으로 추진해온 고부면 소재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사업이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시공이 완료되었다.

지난해 4월부터 총사업비 25억원에 투입해 1년 6개월 간 공사를 추진해온 시는 내달까지 시공을 완료한 후 11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시설은 1일 80톤 처리 규모로 분류식 오수관 4.7km과 중계 펌프장 1개소, 212여 가구의 배수 설비가 설치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 시설은 소재지 마을(고부, 남북, 남영, 장문)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 폐차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제공은 물론 공공 수영 수질오염 방지와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 완공으로 생활하수 유입 하천과 배류 수역의 수질 보호는 물론 자연생태 보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고 고부면 관할 구역 내 건물 신축 시 정화조 설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돼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게 됐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번 행사는 위 도면체육회가 주최하고 위도면이장단협의회가 주관하며 위도 면과 위 도면주민자치위원회가 후원한다.

힐링의 섬 '위도' 노을 축제 개최

내달 6일 위도해수욕장 야외공연장에서 주민과 함께

노을이 아름다운 '고슴도치 섬' 부안군 위도 면에서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하는 힐링의 섬 위도 노을 축제 제20회 위도면민 화합 잔치가 오는 10월 6일 위도해수욕장 야외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위 도면체육회가 주최하고 위도면이장단협의회가 주관하며 위도 면과 위 도면주민자치위원회가 후원한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식전 행사 사물놀이를 시작으로 기념식과 민속놀이 화합행사 등으로 진행된다.

민속놀이는 율놀이와 줄타기, 엄마 손 맛 대맛 경연대회 등으로 진행되며 화합행사는 초청공연(초청가수·춤)과 민민노래자랑, 경품추첨 등 다채롭게 치러 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위도 면에서 생산되는 멸치 등 각종 수산물도 홍보·판매한다. 신경철 위도 면장은 "이번 행사가 성공적인 축제로 치러 질 수 있도록 위도를 대표할 수 있는 엄마 손 맛 대맛 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며 "오복이 넘치는 행복한 군민 자랑스런 부안 만들기에 주민 모두가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